

SKT 클라우드 솔루션,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지원

SK텔레콤은 자체 개발 클라우드 솔루션 'TACO'를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TACO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등 유연한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접속이 폭증하는 일이 발생해 서버가 다운될 위험이 있을 경우 관리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서비스 서버 용량을 늘려주고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이 산업 전반에 걸쳐 TACO 솔루션이 폭넓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국 SK텔레콤 클라우드 사업담당은 "앞으로 TACO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등 SKT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국 기자**

이마트, 채식 간편식 브랜드 '오늘채식' 론칭



이마트의 즉석조리 매장인 키친텔리가 채식 간편식 브랜드 '오늘채식' (사진)을 론칭했다. 첫 제품으로 샐러드 전문업체 스투벨런스와의 협업해 '비건 두부면 샐러드', '참깨 치킨 샐러드', '콩불고기 샐러드'를 선보였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채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장 낮은 채식 단계인 플렉시테리언부터 풀로 베지테리언, 비건까지 3단계로 기획했다. 채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간장이나 불고기맛 등 친숙한 양념을 활용했다. 채식은 배고프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두부면, 감자, 곡물 등 재료를 추가했다. 또 종이 재봉에 용이한 공기밥 잉크, 코코넛껍질 등 상품 패키지에 친환경 원료를 적용했다.

이마트는 '오늘채식'을 "친환경과 동물복지 등 소비 행위에 개인 신념이나 가치를 더하는 '미닝아웃' 소비자가 늘었고, 건강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겨냥해 채식 상품 강화에 나섰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하루 만에 끝나는 '당일' 임플란트 시술  
한자 마다 가능여부 달라...치과 선택 신중

치아는 나이 들어가면서 질환이나 노화 등으로 손상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 치아를 잃고 방치하면 치열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잇몸 뼈가 흡수되어 다른 치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하면 인공치아로 빈 곳을 대체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소실된 치아의 기능을 대부분 수복하고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해 만족도가 높은 치료로 중 하나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의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한 후 유착되도록 기다렸다가 지대주와 보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최근 시술 시간을 단축하고 통증이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당일 임플란트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하는 수술법이다. 임플란트 시술 시에 식립하는 보철물을 미리 제작해 크라운까지 연결을 완료한다. 발치 직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잇몸이 아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수술 후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당일 임플란트 시술과 그에 따른 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숙련된 의료진이 검진해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야 진행할 수 있다. 치과에서 잇몸뼈 분석과 위치선정, 임플란트 결정 등을 거쳐 수술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원흥탐치과 정현중 원장

롯데 신동빈 회장, 2022 상반기 VCM서 '혁신' 주문

인재가 미래다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오픈



20일 열린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개원 행사에서 롯데 관계자들이 핸드 프린팅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김교현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 회장, 백주환 캐논코리아 사원(신인사원 대표),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김성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안세진 롯데 호텔군 총괄대표(왼쪽부터). 사진제공 | 롯데

“새로운 시장·새로운 고객 창출에 투자 집중”

“기업가치 향상·인재 육성 투자 중요 시대변화 읽고 고객을 우선순위로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리더십 강조” 디지털 강화...오산캠퍼스 리뉴얼

주목받았다.

신 회장은 “역량 있는 회사,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를 만드는 데에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핵심”이라며 “인재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사회적으로 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생각해왔던 성과의 개념을 바꾸겠다”며 “과거처럼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2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구 사장단 회의)을 열고, “새로운 시장과 고객 창출에 투자를 집중하자”며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VCM은 '새로운 롯데, 혁신'을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2022년 경제·산업 전망, 그룹 경영계획 및 사업전략 방향 등을 다뤘다. 특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한 지 2년 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로

또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통해 신규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향상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우리 고객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선한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을 위한 리더십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여러분은 일방통행 소통을 하는 경영자입니까? 아니면 조직원의 공

감을 중시하는 경영자입니까?”라고 물으며 리더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힘을 제시했다. 그는 “어렵더라도 미래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라도 과감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결단력, 목표 지점까지 모든 직원들을 이끌고 전력을 다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하면 좋은 일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롯데인재개발원 리뉴얼

한편 롯데는 이날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를 리뉴얼 오픈했다. 1993년 1월 개원한 이후 29년 만에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이날 개원 행사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각 사업군 총괄대표, 롯데지주 및 계열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핸드프린팅 세리머니, 기념 식수 행사,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했다.

롯데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산캠퍼스에 1900억 원을 투자

했다. 오산캠퍼스는 연 면적 4만6000㎡ 규모로 학습동 1개, 숙소동 2개 등 3개 건물로 구성했다. 연 면적은 기존 캠퍼스 대비 3배가량 커졌다. 학습동은 49개 강의실로 구성되며, 학습 인원은 동시에 최대 147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토의가 가능한 형태의 강의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원형 강의실에 계단식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300인치 스크린을 설치해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2030 MZ세대 직원들의 학습 트렌드를 고려해 디지털 전환 시설을 강화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 2곳을 마련했다. 별도의 엠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건물의 입·퇴장, 숙소 내 조명·전자기기 컨트롤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환경도 구축했다.

회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파트너사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떡볶이’ 수습 나선 카카오, 남궁훈 단독대표 체제 전환

남궁 훈 내정자 “ESG 경영에 전념” 3월 주총·이사회 거쳐 공식 대표로 “책임 통감” 여민수, 임기연장 포기



카카오의 새 단독대표로 내정된 남궁훈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제공 | 카카오

최근 계열사 경영진의 ‘떡볶이’ 논란과 공동대표 내정자 사퇴 등을 겪은 카카오가 새 단독대표 체제로 수습에 나선다.

카카오는 20일 이사회후추천위원회를 열고 남궁훈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을 단독대표로 내정했다. 남궁 훈은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 예정이다. 여민수 대표는 “최

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궁 훈은 한계업 창립 멤버다. NHN USA와 CJ인터넷,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카카오계업 각자대표를 맡아 이끌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선임됐다.

남궁 훈은 “사회가 카카오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ESG 경영에 전념할 것이다”며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글로벌로 카카오의 무대를 확장하고 기술 기업 위치를 공

고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신입 공동대표로 류영준 카카오오픈 대표를 내정했다. 하지만 12월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오픈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서 ‘떡볶이’ 논란이 불거졌고, 류 대표가 사의를 표하면서 새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카카오가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 비전과 포용적 성장을 고민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글로벌비스,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 ‘오토벨’ 론칭

사업자등록증·중사원증 필수 제출 허위매물 걱정없이 안심거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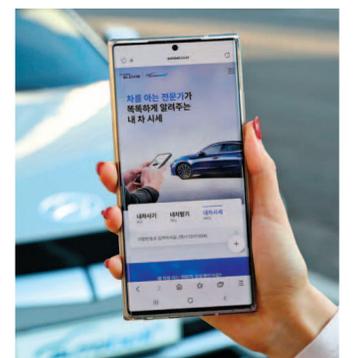
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차량을 오토벨 플랫폼에서 ‘스마트옥션 인증 차량’ 메뉴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인증된 경매회사를 통해 투명하게 유통된 차량을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경매센터와 무관하게 딜러가 매입한 중고차를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위매물을 팔다 적발된 딜러의 회원 자격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규정 등도 마련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운영 중인 각 중고차 경매센터와 데이터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의 실매물과 판매 여부를 검증한다.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토벨의 ‘내차 사기’ 항목에서 ‘라이브 스튜디오’ 메뉴를 통해 차량의 내·외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360도 회전 가능한 VR(가상현실) 사진과 전문평가사가 진행한 112가지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한 차량을 집까지 배송 받고 3일간 시승 후 구매를 확정하는 온라인 홈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글로벌비스의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 ‘오토벨’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오토벨 앱에 접속해 내차사기, 내차 팔기, 내차시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현대글로벌비스